

광주시, 말로만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

도시철도·버스 노선중복 등 고질적 문제 두고 실천없는 계획만
공공교통 부정적 인식 키워 도시철도 2호선 등 신규 투자 막아

광주시가 말로만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을 내세우면서 관련 정책 도입 및 예산 배정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대중교통 운용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도시철도와 버스의 노선 중복, 구도심 위주의 시내버스 노선 배정, 승용차 이용 중심 교통시스템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놔둔채 '실천 없는 계획'만 수립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광주시 대중교통계획(2012~2016) 이후 도시철도 2호선 설치 논란으로 제3차 계획(2017~2021)은 중단해놓은 상태다.

시는 2차 계획 당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BRT(급행간선 버스시스템) 도입(중장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버스전용차로 개선, 광주권 광역철도 건설(중장기) 등과 함께 자동차 통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중장기), 자동차 공영운행제 도입(중장기), 주행거리 공인인증제도 도입(중장기)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정해뒀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지난 5년간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다.

시는 또,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중장기),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연계 제고 등 주차 관리 개선 방안, 녹색교통 기반 조성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계획만 수립해놓고 수년간 아무런 실천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2014년 2838억원, 2015년 2152억원, 2016년 4131억원 등을 대중교통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공염불에 그쳤다. 2016년 시는 고작 2380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준공영제,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내버스 노선개편도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되지 못하고, 여전히 구도심 중심으로 짜여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준공영제 지원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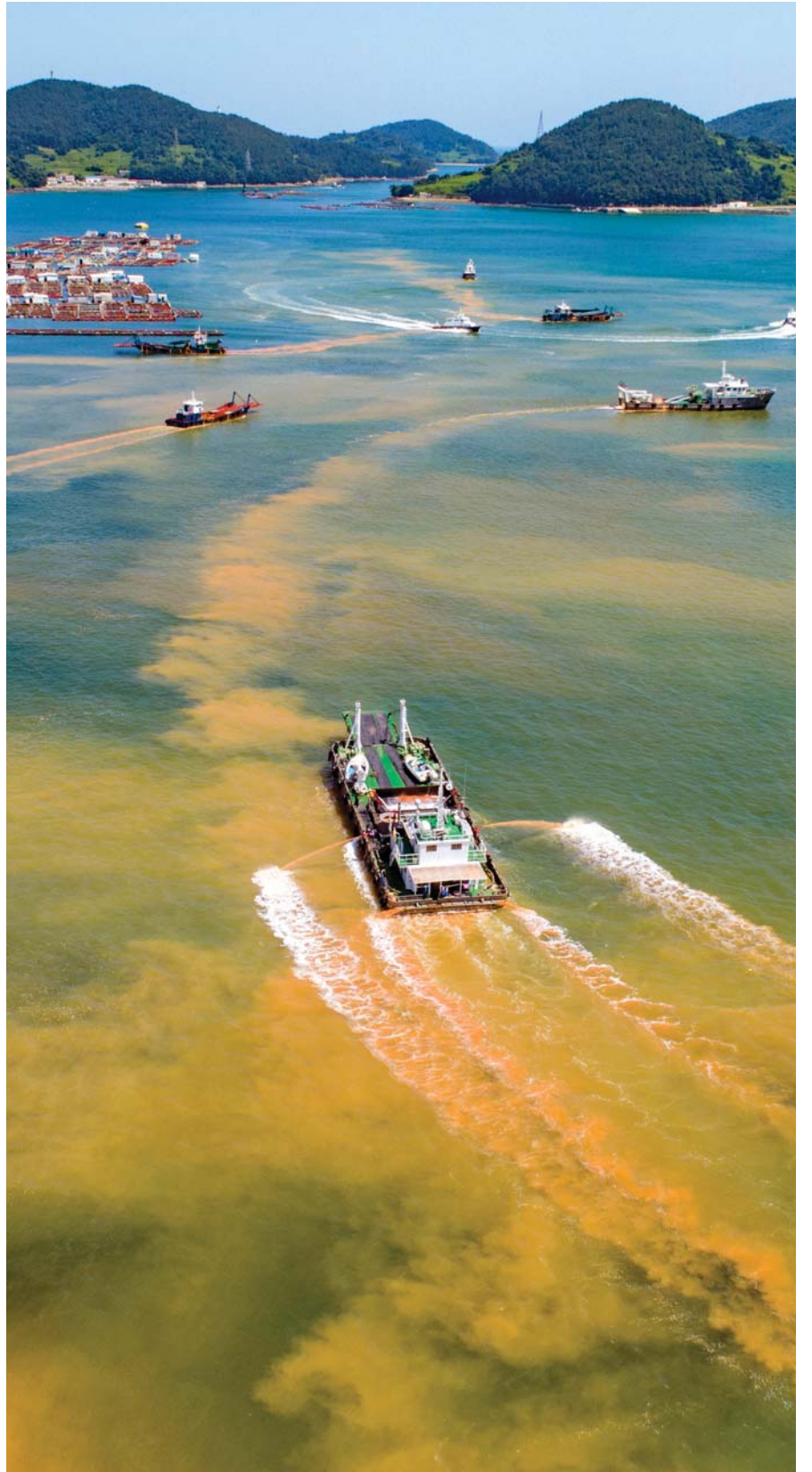
지난 2016년 광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버스노선이 도심에 집중되고, 장대노선(운행거리가 긴 노선)이 상당수 존재하며, 사각·낙후지역 버스노선 부족, 중복 노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 미흡, 노선 개편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 등에 얽매어 서

비스의 질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의 서비스 질 정제 및 저하는 이용자 감소, 시의 지원 규모 증가로 이어지면서 공공교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돼 도시철도 2호선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막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은 각각 563억원, 454억3400만원으로, 1017억3400만원에 이른다. 2019년 준공영제 지원금은 604억원,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은 491억4100만원으로 매년 5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철도 2호선,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 신규 투입 등의 신규 투자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와의 연계하는 혁신 시스템 도입, 승용차 운행 억제 대책 시행 등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현장’ 전일빌딩·금남로 일대

광주비엔날레 현대예술 현장으로

외벽 전면에 대형 작품 설치
금남로에서는 퍼포먼스 펼쳐

5월 민중항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과 금남로 일원이 현대예술의 현장으로 변신한다.

〈관련기사 16면〉

25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2018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전일빌딩 외벽에 5·18의 의미를 고찰하는 두 작가(팀)의 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재단 측에서는 당초 건물 내부 공간도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요청했으나 공사가 예정돼 있어 외부만 활용하게 됐다.

명랑한 에너지가 담긴 스펙터클한 대형 벽화 작업으로 흑인 하위문화와 공권력의 잔인성 등 정치적 이슈를 담아내온 미국 작가 니나 샬 애브니는 폭력의 유산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5·18항쟁을 재고찰하는 대형 현수막 작품을 전일빌딩 외벽 전면에 설치한다. 풍자와 짓궂은 유머 등

을 통해 발언해온 작가는 정치적 폭력과 합리화를 5·18과 연결해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 현상의 이면에 주목해온 그룹 ‘옥 인플레이티브’는 5월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구술과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슬로건 등에서 발췌한 문장을 재구성 한 현수막 작품 ‘통로와 비결정 지도’를 ‘국가 폭력의 극단적인 예로 미디어를 통해 자주 비춰지는’ 전일빌딩 외벽에 설치한다.

금남로 일대에서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톰 니콜슨은 오프닝 기간중 차례 광주 시민군이 계엄군에게서 광주를 탈환했던 5월 22~26일까지 5일간 이어진 수습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선언과 증언을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하는 ‘Stranger at Fountain’을 선보인다. 또 사이먼 링은 9월 7~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계단에서 최근 김정일의 방한 및 5·18광 무력진압 등 정치권력을 다룬 퍼포먼스 ‘Rehearsal for 9 Collective Movements’를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죽 더우면 태풍을 기다릴까 ...

12번째 태풍 ‘종다리’ 복상
한반도 비구름 몰고올지 주목

25일 새벽 광 북근에서 올해 들어 12번째 태풍이 발생했다. 폭염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비구름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광 북서쪽 약 1천110km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이다. 현재 시속 14km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종다리는 29일 오전 3시께 일본 도쿄 남 남동쪽 약 160km 해상을 지나 일본 본토를 관통한 뒤 이날날 오전 3시께에는 독도 동쪽 약 350km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발생 초기라 변수가 많다고 국가태풍센터는 전했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태풍이 소멸하는 시점에 동해 상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기압계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마가 끝난 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가마솔더위가 이어지자 피해가 없다면 태풍이 한반도에 시원한 빗줄기를 뿌려주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종다리’가 한반도 폭염의 기세를 꺾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 태풍이 과연 현재 전망대로 동해 상으로 이동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적조 발생 여수해역 황토 살포

폭염이 계속된 25일 적조가 발생한 여수시 남면 하태도 해상에서 황토살포와 고압 물뿌리

기, 프로펠러를 이용한 적조 방제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적조 방제작업에는 황토살포선 8대와 지휘 및 예찰선 4대 등 모두 12척의 선박과 60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명현관 해남군수 민선 7기 구상
- 땅끝공원·빛의 숲 관광에 활기 ▶11면

아시안게임 축구 조편성
- 한국, UAE·바레인 등과 E조 ▶21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6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저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항로 520(수운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작동7단), 복합회합유도 변비 (CS변비): 9.7km/ℓ (도심변비: 9.1km/ℓ, 고속도로변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변비 (CD변비): 2.3km/kWh (도심변비: 2.0km/kWh, 고속도로변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저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